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추진 방향

2018. 2. 5.

금 융 위 원 회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대학생 여러분, 예비창업인, 핀테크 업체 관계자,
금융회사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가을 청년·혁신 스타트업 현장(IF 2017)을
방문하여 청년 창업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바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미래 금융산업의 주역인
청년분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날이 아직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젊은 금융인, 예비금융인들과 특히 대학교에서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니
마음만은 봄기운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청춘의 특권’이라고 하지만,
저 역시 늘 미래를 꿈꿉니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이
바로 금융당국의 수장인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오늘 이야기 나눌 「금융부문의 경쟁 촉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I. 금융산업의 경쟁촉진

금융위원회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금융혁신을 통해
2018년을 ‘금융산업 무술통공’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해통공**은

조선최초의 시장주의자라 할 수 있는 정조시대의 정승 채제공이
정조개혁의 총사령관으로 시전상인의 독점적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조선후기 상업 발달을 이끌어낸 개혁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금융산업의 무술통공이 듣기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경쟁을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우리경제와 사회의 다양성을 낳고
그것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재미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나라와 로마가 전쟁을 벌인다면 누가 승리할까?”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 '17.12.9, 중앙일보, “진나라 vs 로마제국, 누가 이겼을까”

* 진나라 : BC 221 ~ BC 206, 로마제국 : BC 2세기 지중해 패권장악

기사의 결론은 병력에서는 진나라*가 우세할지 모르나,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로마의 힘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진나라는 진시황 이후 단시간 내에 멸망했고,
로마제국은 1,000년 이상 번영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 분서갱유로 책을 불태우고 유생을 몰살하는 등 사상과 철학을 말살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 에트루리안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 카르타고인보다 못했다’*는 로마가
1,000년 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개방성”, “다양성”의 힘입니다.

* 시노오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우리 금융산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20년간 시중은행이 신설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험산업은 종합보험사 위주의 안정적 산업구조로
작지만 강한 혁신플레이어의 개혁이 보이지 않은지 오래입니다.

증권산업의 경우도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인 NPM, Sharespost 등과 같이
비상장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공급·중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과감히 낮추겠습니다.

먼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도전자들이
금융업 테두리안으로 신규진입^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잠재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일시적, 한시적 진입기회^②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는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로드맵” 등을 통해
현재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기회^③를 제공할 것입니다.

Ⅲ.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융인, 그리고 예비금융인 여러분!

이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적극적 진입정책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먼저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진입정책 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의해
보수적, 칸막이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경쟁이 부족한 영역에는 적극적으로 신규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2. 진입장벽 낮추기

두 번째로, 진입장벽을 낮추어
혁신적 참가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① 등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보험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전문 보험사'^②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팻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출현을 위해
대폭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③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신규진입이 부진했던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시장의 '특화보험회사'^④ 진입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를 허용하겠습니다.

증권업의 경우
사모증권, 코스닥·코넥스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하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자문업·일임업의 경우도 등록단위를 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인 자문회사 등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자문 → 일임 → 사모자산운용사 등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업자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탁업은 업무의 위험도에 비해 현재 요구되는 자본금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신탁업을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치매, 유언신탁, 펫신탁 등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3.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진입장벽을 낮춘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낮아진 문턱을 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인가심사시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등 인가 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인가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email 또는 SMS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인가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가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인가를 처리하도록 하는 인가의 Fast Track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로버트 쉘러는 그의 저서 「Finance and the Good Society」에서
금융은 중요한 사회적 도구이자 성장의 주춧돌이며,
금융개혁을 통해 사회 발전, 나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구하는 경쟁을 통한 금융혁신이
사람중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모인 젊은 금융인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시각에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